

깨닫고자 한다면 자기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라

주제: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 3

일시:11월 10일

장소:광주동구KT문화센터

강사:명진 스님(서울 봉은사 주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광주에 내려오면서 이런 저런 감회가 좀 많았습니다. 광주는 제가 감진 만덕사나 송광사 선방에 살 때 지나쳐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초청 받아서 오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 그러면 뭔가 저에게는 빛 같은 걸 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살아왔습니다. 어느 때 부턴가 광주를 '빛고을'이라고 부르더군요. 빛고을 광주(光州). 참 이름 너무 이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광주를 품어 안고 있는 산 이름도 무등산(無等山)이어서, 참 형이상학적인 이름이란 생각이 들어요. 무등산, '평등'도 아니고 '무등'입니다. 계급이 없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뜻합니다. 또 무각사를 스쳐 지나가는 강 이름이 극락강(極樂江)이잖아요. 빛고을 광주에는 우리가 바라는 끝없는 정토 세계의 좋은 이름이 다 여기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예향'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도시는 그렇게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경제 제 일주의에 빠져서 먹고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을 최고로 치는 세상, 물질적 가치에 중심을 두는 세상에서 광주는 오래전부터 돈이나 물질, 이런 것들보다 예술을 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표가 주는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주에 초청을 해주신 광주 불자님들께 머리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는 뭐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만 이야기하기 보다는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는 것도 이해가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복과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내생의 천국을 약속 받는 종교인 것입니다. 반면, 불교는 끝없는 자기 물음을 통해서 각성 즉 깨달음으로 가는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불교는 성찰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불교는 물음의 종교라고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부처님 법에도 기도와 발원과 염불, 그런 것을 통해서 다음 생애 극락을 갈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향한 끝없는 물음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진 스님

그렇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생각에 도달하면 불교가 이제 어려워지고 가장 난해해집니다. 무턱대고 맡겨놓고 빌어서는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열을 같이 차가운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전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강원에서 글을 많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어릴 적 모친께서 두 살 난 제 동생과 여섯 살 난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때 부산에 있는 당감중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섯 살 때인데 화장터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른 봄, 찬바람 막 말아치는 그 추운 날, 삼베옷을 입

고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 서있었던 걸 없던 그 시절이 오랫동안 저를 지배해왔습니다.

집도 가세가 기울어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전학만 여섯 번이나 다녔습니다. 또 내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맨날 찜박집에 사고를 아주 많이 쳤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 댁에서 제가 사춘기를 보냈는데, 그 심사가 얼마나 편치 않았겠어요. 그때 마침 친 수석사의 김일엽 비구니 스님이 쓴 <청춘을 불사르고> 라는 책을 보게 되었고, '아- 이거 불교라는 것이 참 묘한 종교구나'라고 느꼈고, 그러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3학년 때 저를 아는 분이 무주 설천면에 관음사라는 절에 저를 공부 하라고 보냅니다. 비구니 스님 절에서 대입공부 해서 합격하면 대학 보내줄테니 가서 공부하고 오라 해서 그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순간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인연이 때로는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에서 지내면서도 불교에 대해서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날 해인사 스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방이 마땅치 않아 제 방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이 절에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뭔가 다르더라고요. 정갈하게 광목 두루마기를 입고 걸방을 메고 밑질모자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도랑에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맑고 깨끗했습니다. 스님이 공양하신 모습이나 신고 온 양말을 빼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에서 스님의 위엄(威嚴)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스물 세 살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당시 저는 19살이었지만 스님의 위

"취직 하면 또 뭐하는고?"

"취직해서 이제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또 뭐하는데?"

"아니, 살다 사람이 죽는 거지. 뭘 자꾸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공부 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썩어있고 썩어있는데 사실은 그게 말고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어쩌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출가하시고 뭘 하십니까?"

"부처님 법은 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뭔가를 깨닫는 그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아는 거야. 너는 니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면서 니가 뭘 대학 가고 한다는 게, 그게 전부 허황된 저녁노을 같은 거 아니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불교는 물음의 종교다

해인사로 출가... 세상 잘못 꾸짖는 승려대회 열어

에기가 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책을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스님께 서는 방 한 쪽을 쳐다보고 숨소리 하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생전 처음 봤죠. 제가 속으로 '아니, 저 인간이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사람 겁잡혀 죽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치니까 부스스 일어나더니, 마당가에 묵은 빛나무가 있었는데 달빛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포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방에 들어와 또 방석에 앉아서 참선을 합니다. 아 그리고 꼼짝을 안 하네. '아, 저 인간이 뭐하는 인간일까? 참 이상하다'하고 생각이 들어 잠들기 전에 '스님 뭘 좀 여쭙보겠습니다.' 이러니 '남한테 뭘 물을까 뭐 있겠소. 지 할 일 잘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 것 참 '이걸 한 대 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건방지고, 도도하고,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가 놀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뭘 좀 여쭙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딱,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뭘 그렇게 궁금해요?'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스님들한테 속인들이 뭘 물어볼까? '스님은 왜 중이 됐습니까?' 그게 많이 물어옵니다.

그때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학생은 여기 뭐 하러 와 있나?"

"예, 저는 대학교 준비하려고 와 있습니다."

"그래, 대학은 가서 뭘할건데?"

"아니 대학 가서 좋은데 취직도 하고 그러죠."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히 수행이 깊었던 스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스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18년 동안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부분이 다 사라지고 제가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공양을 하시고 스님이 가시는데, 제가 걸방을 지고 버스 정거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스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출가해서 스님 하시면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훌륭한 수좌스님이 될 것 같으니, 같이 만나서 공부합시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6개월 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 후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출가를 해서 이렇게 중노릇을 하다가 30살 되던 해에 광주민주화운동을 만났습니다. 저는 신문만 봐서 시민들이 폭도들이고 간첩이 선동을 해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는 나를 깨닫기 위해 출가를 했으니까, 세상은 다 나와 상관없이, 나는 공부만 해야지, 이 뭘고 화두를 해서 깨달아가고 정말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지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도에 해인사에서 광주항쟁 비디오편집을 하다가 스님들과 몰래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같은 땅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하는데, 과연 그럼 나는 무얼 하는가? 이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스님들을 모아 세상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6년 '97 해인사 승려

화제의 신간!!

佛敎는 깨달음의 科學

無明 속에 있으면 五蘊(정신, 육체)가 내가 되고 無明 을 벗어나면 五蘊(정신, 육체)는 내가 아니네 때문에 無明 속에 있으면 生死는 나의 運命 無明 을 벗어나면 生死는 꿈 속의 꿈이리네

無明의 족쇄를 풀어 줄 窓 밖의 108要談
無塵 황경환 편저 | 도서출판 풍경소리 | 총 238면 | 정가 10,000원

도서출판 풍경소리 053)424-0144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